

광양시, 코로나재유행에 따른 식품접객업 전략적 대응

일상생활 감염 확산에 따른 생활방역수칙 준수 독려 항시 마스크 착용·주기적 소독·1일 3회 환기 등 권장

광양시가 변이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체제로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둔화하다 7월 첫 주부터 전주 대비 확진자가 두 배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감염재생산지수가 0.75에서 1.48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시는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식품접객업 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재유행 대비 전략적 대응계획 수립에 나섰다. 식품접객업자와 종사자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하며,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

지 또는 좌석 한 칸 비우기, 손이 자주 닿는 곳(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이용자는 식사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식사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를 자제하고,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약속은 가능한 줄이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등을 활용하시길 바란다. 시는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다중 이용 식

품접객·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서며,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해 민원신고·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개인 방역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 5,000장을 제작해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에 부착한다. 또한, 제작년부터 18시 이후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민원신고 시 즉시 현장 출동해 대응하도록 민원대응반을 운영해 2020년 119건, 2021년 531건, 2022년 78건을 접수했으며 12,316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200건의 시정조치, 97건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새로운 변이 혹은 재유행에 따른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증가한 각종 모임에서 생활방역수칙의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민선8기 첫 추정 6860억원 확정...연말 8천억 목표

민생경제 회복 초점 964억 증액

보성군은 지난 2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964억 원 증액 편성해 6,86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군정 주요 핵심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 31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4억 원, △보성사랑상품권 할인 발행 28억 원,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진남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도 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특히, 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증진과 일자리 확대가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유지보수 46억 원, △보성 도시침수 관로 정비사업 7억 원, △저수지 보강 및 보수에 26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름대체비와 관광 개발사업에도 3억 원을 추가 편성해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정책도 추경에 적극 반영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9억 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15억 원을 지원한다.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 13억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23억 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억 원, △조식료 기계장비 지원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기반 시설 확충에 86억 원을 투입했다. △용배수로 정비 45억 원, △마을안길 포장 11억 원, △흙수로 구조물보강 5억 원, △농로포장 8억 원, 기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8억 원을 투입했다.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 정비에 9억 원을 반영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경전선 순천 도심구간 통과 문제 해결 시급 노관규 순천시장, 도심 관통하는 철도계획 변경 요구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계획은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현재 5시간 이상 걸리는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구간 단선 전철화사업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순천시의 의견청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루 6회 운행하던 것이 하루 40회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30분에 한 대꼴로 고속열차가 도심을 관통하게 될 예정이다. 순천 시내 10곳의 평면교차로에서 교통

체증 현상은 자명하고, 시민들은 철도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7m높이의 고압 구조물이 생겨나 도심경관을 훼손하게 되고,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1930년 건설 이후 100년만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조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순천의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순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여당,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경전선이 도심 우회 노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전시체험부스 북적 31일까지 박람회장에서 진행...시민과 관광객 발길 이어져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기간(7. 22.-31.) 운영 중인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전시체험부스가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과 주말 이틀 동안 약 500명의 참가자가 전시체험부스를 방문하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EDG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자원순환

가게의 운영 활성화와 시민 참여 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관광객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품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들이 병뚜껑과 플라스틱 컵을 이용한 재활용품을 직접 만들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산교육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전시체험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탄소중립 도시 여수를 만드는 큰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